



특집 II

우리나라 포장재 산업의 현황

1. 포장재 부문별 생산 현황

1-1. 종이재

우리나라 전체 포장사업 중 지류포장재가 약 40%를 점유하고 합성수지가 37%, 금속포장재 17%, 유리용기가 7%의 순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장산업 중 지류포장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가장 크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종이재는 80년대 연 30%의 높은 성장률에 비해 90년대 들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이 이어져 성장률이 10%대로 떨어졌으나 94년 국제적인 펄프가격의 급등에 따른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생산이 100% 이상 증가하였다(표 1 참고). 종이재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여러 장점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그 우수성이 재인식되면서 여러 형태로 생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표 1) 종이재의 재질별 생산현황(단위 : 톤)

구분 \ 연도	1994년	1996년 1~4월
펄프	531,759	197,658
종이	271,076	98,680
판지	3,080,359	1,117,681
합계	3,883,194	1,414,019

1-2. 유리재

94년 유리병업계는 각 유리병 생산업체의 신·증설 완료에 따른 공급물량의 증대와 한여름 폭서에 의한 음료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전년대비 30%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 최근 몇년간 지속되어 온 생산량 감소 추세를 일시에 반전시켰다.

94년 부문별로 살펴보면 3~60%까지 생산이 증가하고 건강음료병은 84% 증가를 했다(표 2 참고). 이러한 증가가 94년 이후 다시 하락한 유리병업계의 생산량 및 판매량을 유지한 가장 특징적인 경우다. 96년도 상반기는 총 판매량에 있어 95년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94년부터 식혜 등 전통음료의 선풍적인 인기와 소주시장에서 대중주를 출시함으로써 신병수요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반면 맥주 총수요가 전년대비 정체 또는 감소하고 위스키시장의 수입판매 치중은 신병판매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유리병업계 성장의 장애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체용기에 의한 시장잠식이라 할 수 있다. 대체용기의 성장률은 유리병의 성장률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 특히 우유에서는 종이팩, 맥주에서는 캔, 소주 및 음료 등에서는 플라스틱의 침투가 두드러진다.



특집 II

[표 2] 유리제의 종류질별 생산현황(단위 : 톤)

구분		연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음료병	주류병	맥주병	111,459	91,670	146,001	125,364
		소주병	103,141	100,684	129,740	99,293
		양잠주	55,814	45,778	70,900	58,287
		소 계	270,414	238,132	346,643	282,944
	청량음료	48,385	30,572	39,945	45,439	
	건강·영양	164,389	98,473	181,871	223,234	
소 계		438,188	367,177	565,459	551,617	
식품, 조미료		70,229	74,636	90,789	76,210	
화장품병		10,158	13,863	13,347	10,097	
약 병		136,460	172,388	151,111	167,639	
농약병		31,891	20,467	12,953	19,072	
기타병		15,064	30,794	18,461	16,314	
수출병		3,139	8,134	11,837	20,061	
합 계		750,129	687,464	863,957	861,010	

1-3. 금속재(접관을 제외한 식품용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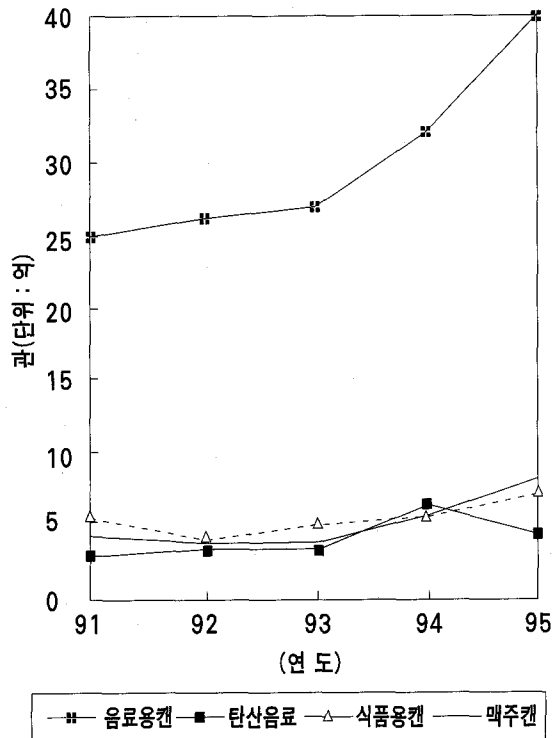
전체 포장산업의 규모에 비해 금속용기는 타 분야의 급속한 신장에 비해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92년 한때 경기침체로 약 5%의 감소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93년에는 전년대비 약 7%의 신장세로 반전된 이후, 지난 94년에는 한여름의 폭서와 적극적인 신수요 창출에 힘입어 생산 30%의 급신장세를 나타냈고 95년도 약간 증가 추세였다. 용도별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알루미늄 소재의 맥주캔은 94년도에는 93년도에 비해 50%정도 증가했고 음료캔은 93년에 비해 20% 증가했고 그밖에 식품

용캔(통조림, 분유관)은 14% 증가하였다. 95년도에는 식혜캔 등의 등장으로 음료관이 전년대비 20배 이상 성장하였고 탄산음료는 전년대비 30~40% 감소하였다. 재질별로 분석하면 95년도 스틸캔이 총 46억관, 알루미늄캔이 12억관 생산되어 4:1의 비율로 스틸캔이 월등하나 점차 알루미늄캔으로 대체되는 경향(재활용 문제, 원가문제)에 있어 알루미늄캔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및 표 3 참고).

1-4. 합성수지재

국내 합성수지 포장재의 생산현황은 90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을 나타냈고

[그림 1] 금속캔의 생산현황



(표 3) 금속캔의 용도별 판매현황(단위 : 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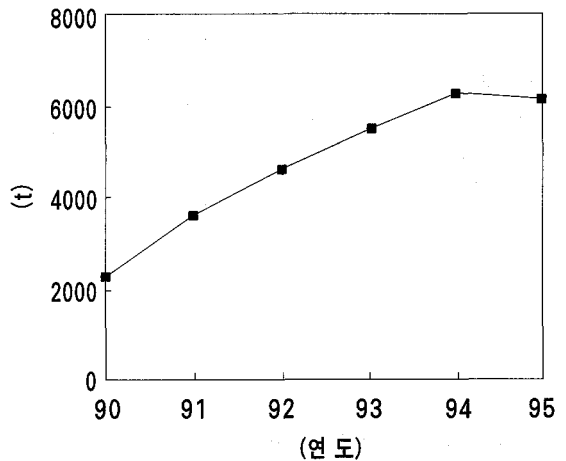
구분	연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알루미늄	스틸	알루미늄	스틸	알루미늄	스틸	알루미늄	스틸	
식품관	음료관	맥주용	359,000		378,862		548,401		711,000	
		탄산용	*		*		601,182	746,067	432,000	491,000
		주스용	*		*		13,651	1,523,624		510,000
		기타	*326,000		*331,150		19,152	933,855	33,000	2,606,000
	계	658,000	2,629,688	710,012	2,706,510	1,182,386	3,203,546	1,176,000	3,607,000	
	통조림	참치 및 수산물						409,086		484,000
		농산물						84,902		110,000
		축산물						10,751		21,000
	계		327,478		432,368		504,739		615,000	
	기타관		56,576+		58,283+		100,052		66,000	
			<i>a</i>		<i>a</i>					
합계		658,000	3,013,742	710,012	3,197,161	1,182,386	3,808,337	1,176,000	4,288,000	
총합계= 알루미늄 + 스틸			3,698,742		3,907,173		4,990,723		5,464,000	

93년에는 92년에 비해 13% 증가한 5백40만 7천6백33톤을, 94년에는 93년에 비해 15% 증가한 6백23만1천5백23톤을 생산했고 95년에는 94년에 비해 6.4% 감소한 5백97만6천 8백43톤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된다(그림 2 참고).

합성수지는 그동안 계속 상승세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나 1995년에는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수요가 전년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높은 가격이 지속됨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과 관련 수요업체들이 재고물량을 축소 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소비도 이에 따른 것에 기인한다. 96년에는 가격회복과 함께 지난해 보다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과 [그림 3]에서 보듯이 합성수지 재질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재질은 폴리에틸

렌 및 폴리프로필렌이다. 이들 재질은 식품용 포장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재이다.

(그림 2) 합성수지 연도별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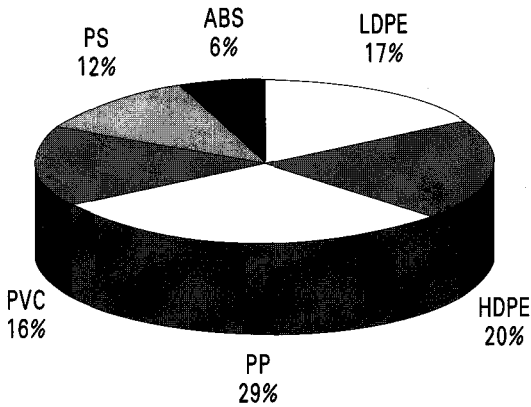


특집 II

(표 4) 합성수지재의 재질별 생산현황(단위: 톤)

구분 \ 연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LLPE	369,486	469,436	789,268	914,174	1,055,871	1,195,457
HDPE	407,640	662,665	1,083,219	1,202,269	1,268,393	1,236,158
PP	606,698	771,196	1,226,876	1,458,290	1,749,948	1,612,617
PVC	512,923	606,443	705,023	759,307	968,875	898,471
PC	499,786	641,084	681,536	739,979	794,737	568,776
ABS	203,472	243,988	290,507	333,644	393,699	465,364
합계	2,368,005	3,394,812	4,785,429	5,407,663	6,231,523	5,976,843

(그림 3) 합성수지 품목별 생산비중



2. 포장재 부문별 수출입 동향

2-1. 주요 합성수지(LDPE, HDPE, PVC, PP, PS, ABS) 품목별 수출입 동향

수출입 현황은 해외시장에 적극 나서 93년에는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2백27만2천77톤을 수출했고, 94년에는 93년에 비해 10%가 증가한 2백51만1천9백44톤을, 95년에는 94년

에 비해 9.2% 감소한 2백28만1천9백18톤을 수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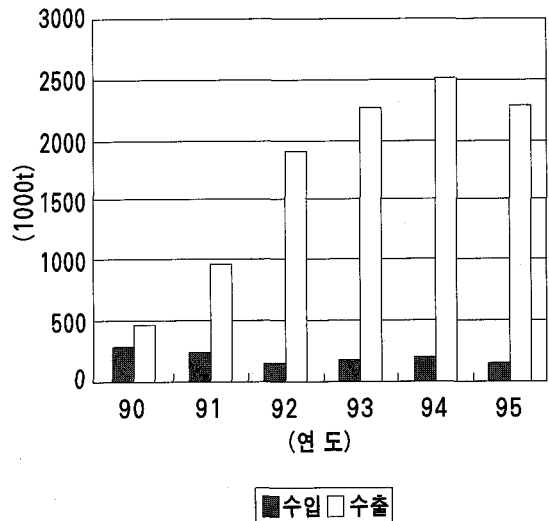
반면 수입은 국내생산의 안정세에 따라 93년에는 92년대비 20%가 증가한 15만4천6백94톤을 수입했고, 94년은 전년대비 9% 증가한 16만9천9백78톤을, 95년에는 9.2% 감소한 12만4천6백66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고).

각 합성수지 재질별 수출입 및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그림 5, 6)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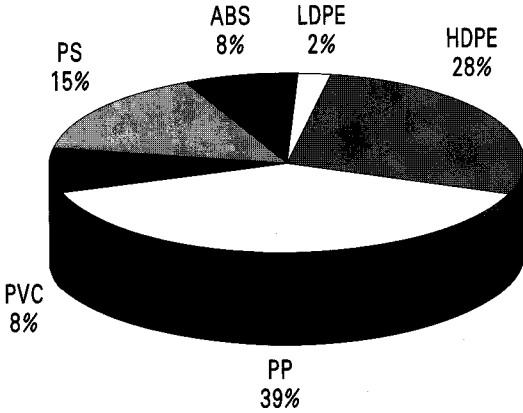
LDPE는 수입과 수출비중이 비슷하나 HDPE의 경우는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중 주요 합성수지별(저밀도폴리에틸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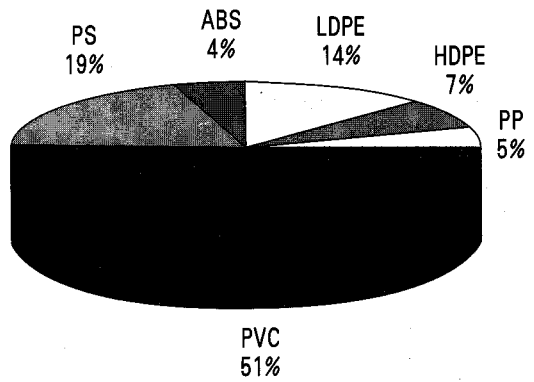
(그림 4) 합성수지 포장재 연도별 수출입 분석



(그림 5) 합성수지 품목별 수출 현황



(그림 6) 합성수지 품목별 수입현황



(표 5) 주요 합성수지 연도별 수출입현황(단위 : 톤)

연도 구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LLPE						
수입	77,781	47,754	17,304	19,358	23,636	38,519
수출	15,217	71,400	279,787	340,285	388,945	533,712
HDPE						
수입	33,210	24,350	14,627	9,948	11,400	6,762
수출	125,594	215,403	526,624	596,607	597,800	584,044
PP						
수입	15,824	13,874	7,625	7,819	8,929	12,972
수출	74,566	248,771	600,670	763,511	870,402	841,907
PVC						
수입	136,853	120,506	72,334	84,432	87,302	57,783
수출	52,233	101,011	127,849	129,615	168,369	135,094
PC						
수입	9,702	13,034	14,009	28,061	31,849	15,367
수출	105,763	223,423	242,853	290,198	315,735	277,420
ABS						
수입	2,648	1,945	1,751	5,076	6,862	10,011
수출	72,220	100,621	134,621	151,861	170,691	238,873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폴리카보네이트, ABS수지) 수출입 동향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수입량보다는 수출량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고 폴리에틸렌이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